

「血의 淚」와 「無情」의 比較考察

李 東 夏*

1. 「血의 淚」(1906)와 「無情」(1917)을 비교할 경우, 양자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다. 문체의 근대성, 묘사에 있어서의 치밀성, 인간의 내면에 대한 관찰의 심도, 현실 파악에 있어서의 구체성 등등 실로 많은 측면에서 이 두 작품은 그 선 자리를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말할 나위도 없이 두 작품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11년의 시간적 간격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혈의 누」와 「무정」이 이같은 차이점들을 갖고 있는 한편으로 또한 중요한 공통점들을 적잖게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사실 위에서 지적한 차이들이란 대체로 소설의 기법에 관련된 것들이며, 작품 속을 관류하고 있는 이념이라든가 작가정신이 무엇인가를 따질 때에는 오히려 공통점이 더 강하게 부각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아마도 이 두 소설이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시대에 속하며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은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유래되는 듯하다.

본고에서는 이 두 편의 소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가를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고찰하고 또 그러한 공통점들이 「혈의 누」의 속편인 「牧丹峰」(1913)¹⁾ 및 「무정」에 뒤이어서 쓰여진 「開

* 博士課程(國文學專攻)·경남대

1) 李在統 교수는 1907년 「帝國新聞」에 발표되었던 「血의 淚 下篇」을 크게 주목하면서 이 작품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牧丹峰」을 「血의 淚」의 속편으로 보았던 종래의 통설은 “신문문헌의 조사를 감안하지 못한 엄청난 오류”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한다(「韓國開化期小說研究」(一)潮閣, 1972), p. 68).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로 보면 이재선 교수의 견해는 그다지 설득력을

拓者}(1917~18)의 성격과 어떻게 대조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한국 근대소설이 그 형성기에 나타났던 중심적인 특징 가운데 일부를 밝혀낼 수 있게 되기를 필자는 희망한다.

2-1. 「혈의 누」에 대해서는 신교육과 자주의식을 고취한 작품이라고 평가하는 입장과 친일적이며 의타적인 작가의식의 문제점을 드러낸 작품으로 보는 입장이 크게 나뉘어 논란을 벌여왔지만 작품 자체의 주안점은 무어니 해도 주인공 옥련이 일곱 살의 어린아이로부터 16세의 처녀로 자라기까지 겪어나가는 시련과 극복의 드라마를 통하여 그 정신적 발전의 과정을 그려내는 데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무정」의 경우에도 작가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인 것은 그 주인공 격인 이형식과 박영채 및 그 둘을 에워싼 주변인물들의 정신적인 성장과정을 추적하는 일이었다. 작품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비교할 때 그 성장의 흔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영채의 경우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형식 역시 작품의 첫부분에서 보이던 우물 안 개구리 식의 선자작 의식을 벗어나서 훨씬 명석하고 책임감 있는 인물로 커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성장하는 주인공으로서의 면모를 뚜렷이 하며, 선형, 우선, 병육 등도 비슷한 발전의 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혈의 누」와 「무정」은 이처럼 등장인물들의 정신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지니고 있거니와, 만약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이 이 정도에서 끝난다면 그것은 크게 문제삼을 일이 못될지 모른다. 왜냐하면 소설이란 본디 “무지의 상태에서 원숙한 현실인식의 상태로 옮겨가는 과정”²⁾을 그리는 것이라고 한 쉬로우더의 견해에서도 암시

갖지 못한 것임이 드러나고 있다. 즉 「제국신문」에 연재된 「혈의 누 하편」은 무시되어도 좋을 작품이며, 「혈의 누」의 진정한 속편은 어디까지나 「모란봉」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田英泰, “「血의 淚」—「牧丹峰」의 變化樣 相考察”, 「先濟語文」제 9집(1978), pp. 51-53 참조.

2) Maurice Z. Shroder, “The Novel as a Genre”, *The Theory of the Novel*, ed. Philip Stevick (New York: The Free Press, 1967), p. 14.

되듯 상당히 많은 소설작품이 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혈의 누」와 「무정」의 공통점은 이런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즉 이 두 작품은 모두 주인공들의 정신적 성장과정을 추적하되 그 출발점을 똑같이 가족의 해체와 이로 인한 고아의식의 발생에다 놓고 있는 것이다. 옥련의 경우 성장의 여로는 청일전쟁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이산되고 옥련 자신은 고아 상태로 떨어지는 지점에서 발단되고 있으며 「무정」의 이형식과 박영채도 모두 어려서 고아가 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특히 영채의 경우 그녀의 정신적 성장은 결혼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죽은 아버지의 영향권을 점점 탈피해 가는 과정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처럼 가족의 해체와 고아상태로의 전락이 결혼에 있어서의 자주권이라는 문제와 결부되는 점에서 영채와 옥련이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특히 강조되어도 좋을 것이다.

이처럼 두 소설의 중심인물들이 모두 가족의 해체와 그에 따른 고아상태로의 전락이라는 체험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을 역사적인 전환기에 있어서 과거의 인습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뿐 아니라 과거에 대한 부채의식으로부터도 해방되어 있는 상태로 인도하는 데 기여한다. 말하자면 「혈의 누」의 옥련이나 「무정」의 형식은 고아가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에 비할 때 몸이 가벼운 상태에 있으며 그런 까닭에 남들보다 손쉽게 새로운 이상의 실현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인물설정은 새로운 이상의 실현을 위하여 나서는 모습을 뚜렷이 부각시키는 데에는 유리하지만, 그나름의 한계도 지니고 있다. 즉 아무리 역사적인 전환기요 혼란기라 하더라도 가족이라는 단위는 엄연히 그대로 버티고 있는 것이 역시 일반적인 현실이며, 가족이 흩어지거나 고아로 떨어진다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로 그칠 도리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혈의 누」에 나타난 옥련의 성장담이나 「무정」에

있어서 이형식이 걸어가는 길이 구한말³⁾에서 1910년대에 걸친 시기의 상황을 반영하는 이야기로서 커다란 가치를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에 의해서는 채 말해지지 않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남는 것이다.

2-2. 다음으로 지적될 수 있는 「혈의 누」와 「무정」의 공통된 특징은 이들 작품이 모두 고난에서부터 그것의 극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작품의 앞부분에서 주인공들이 당면하는 고난은 모두 심각한 것이다. 일곱 살밖에 안된 어린 옥련이 청일전쟁의 혼란 속에서 부모를 잃고 홀 지에 외톨이가 된 것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고난이요, 형식이 나 영채가 어려서 고아의 신세로 떨어진 것 역시 이에 못지 않게 혹독한 고난이다. 특히 영채의 경우는 그 아버지 박진사의 파멸과 죽음이 애국 계몽운동의 좌절과 직결된 것이기에 그 고난의 의미는 더 한층 깊고 무겁다.

그러나 이처럼 심각한 고난에서 이야기가 발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 전체의 분위기는 밝은 쪽으로 기울어지며 점차적으로 고난이 극복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작품이 마무리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였던 것은 긍정적인 미래를 향하여 열린 상태로 작품이 진행되어 가기 때문이다. 이른바 고전적 영웅소설에서 고난의 극복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 천상계의 존재였다면 「혈의 누」와 「무정」에서는 미래가 그러한 구실을 맡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미래에로의 열림을 공간의 차원으로 환치시키면 곧 해외로의 열림이 된다는 점에서도 「혈의 누」와 「무정」은 성격을 같이 한다. 그리고 이 때의 '해외'라는 것이 일본과 미국의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점, 또 일본에 비하여 미국 쪽이 월등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

3) 이 시대는 흔히 '개화기'라는 용어로 불려지고 있지만, 필자는 이 말을 부당한 것으로 보므로 쓰지 않는다. 李東夏, 「1910年代 短篇小說研究」(서울대학교 대학원, 1982), p.1 참조.

등에서도 「혈의 누」와 「무정」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이인직에게나 이광수에게나 일본은 모두 개화의 플러스 모형으로서 긍정적인 의의를 가지기는 하되 그것이 곧 궁극적인 가치기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혈의 누」의 옥련에게 있어 일본은 자기를 구원해 준 은인의 나라이기는 하되 정신적 성장의 여로에 있어서는 결국 잠시 거쳐가는 지점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무정」의 이형식도 소설 속의 사건이 시작될 때에는 이미 일본 유학을 끝마치고 돌아온 상태에 있으며 아직 진정한 깨달음의 단계로부터는 아득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은 이인직과 이광수 모두에게 있어서 개화 이념의 궁극적인 완성을 갖춘 곳으로 상정된다. 「모란봉」 첫머리에 나오는 샌프란시스코 공원의 묘사가 이인직의 이상세계를 그려낸 것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바이거니와 「무정」에 나타나 있는 미국관도 이와 대동소이한 것이다. 김옥련에게 있어서나 이형식에게 있어서나 일본유학의 체험은 미국유학에 비하면 예비단계로서의 의미밖에 갖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두 작품 모두에 있어서 개화모델의 등급이 일본·미국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미국이 완벽에 가까운 이상의 나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개화의 과정 자체에 있어서 일본은 일종의 중개국에 불과하였고 그 원형은 어디까지나 구미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관찰해 보면, 작품을 집필하던 당시의 이인직이나 이광수에게 있어서 일본은 이미 체험으로 알아낸 세계였던 반면 미국은 아직 직접 체험으로 확인하지 못한 채 풍문만으로 들어온 세계였다는 사실과 무관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느낌을 받는다. 그렇다면 결국 풍문이 개화의 준거점으로 등장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고난의 극복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으로서 천상계를 대신하여 등장한 미래라는 것이 반드시 신되할 만한 것이 못되리라는 짐작을 이끌어낼 수 있게 하며, 무정의 끝부분에 제시된 화려한 내일의 비전이 “거짓 이성의 전진을 나타내는

것”⁴⁾으로서 비판받아 온 사실을 상기시킨다.

2-3. 어쨌든 이러한 미래와 해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혈의 누」와 「무정」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노선, 즉 점진적 개량주의의 노선을 선택한다. 이들 두 작가는 다같이 申采浩 류의 직접투쟁론을 거부하면서 점진적인 교육과 계몽에 의하여 낙관적인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는 온건론에 기울어지는데, 이것은 식민지로 전락해 가는, 혹은 이미 식민지로 고착되어 버린 당대의 사회를 궁극적으로는 긍정하는 입장으로서는, 현실과의 타협으로 흐름 가능성을 강하게 내포한 것이었다. 李完用的 비서 역으로서 한일합병의 진행과정에 직접 참가하였던 이인직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이광수 역시 첫 출발점에서부터 이러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가 1916년에 쓴 「大邱에서」라는 기행문 형식의 논설에서 “所謂 政治의 陰謀”를 두고 “이는 知識이 不足하고 社會에 秩序가 없음이니(…) 일찍 海外에 있어 激烈한 思想을 鼓吹하던 者가 東京에 와서 二, 三年間 教育을 받노라면 翻然 引舊夢을 버려(…)”⁵⁾ 운운한 사실, 소설 「개척자」에서 독립운동가 출신의 진경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놓고는 “십년 전에는 가장 새롭던 사람이지만은 시대는 推移하고 자기는 자기의 사상을 墨守하니까 進軍과 이 시대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진군은 자기의 이상대로 세상을 개조하려 하였으나 세상이 진군을 발길로 차던지고 저 갈 길은 간”⁶⁾ 것이라 주장하여 조롱을 마지 않은 끝에 급기야는 그를 광인으로까지 전락시킨 사실 등을 볼 때, 우리는 이광수가 이미 청년시절부터 타협적인 색채를 진하게 띠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⁷⁾

4) 金禹昌, 「궁핍한 시대의 詩人」(民音社, 1977), p. 104.

5) 「李光洙全集」(又新社, 1979), 9, p. 136.

6) 「李光洙全集」, 1, p. 233.

7) 「무정」의 결말 부분에서 작가가 1910년대의 조선을 지극히 밝고 긍정적인 색채로 그려놓은 데 대해서는 김우창으로 대표되는 비판론과 李甫永으로 대표되는 옹호론(李甫永, “植民地文學批評方法的 反省”, 「現代文學」1979년 2월호 참조)이 대립을 보여 왔거니와 「大邱에서」나 「개척자」와 연결시

이처럼 현실타협적인 점진적 개량주의를 내세운 점에서 「혈의 누」와 「무정」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갖지만, 정치에 대한 관심의 농도에 있어서는 두 작품 사이에 차이가 나타난다. 「무정」과 달리 「혈의 누」에서는 정치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대목이 여러번 발견되는 것이다. 그 중 첫번째로 주목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은 막동의 발언이다.

노라는 양반님네가 다망하야 노섯지요 상놈들은 양반이죽이면죽었고 썩리면 마졌고 지물이잇스면 양반의게썩겼고 계집이 어엿썩면 양반의게썩겼스니 소인갓튼상놈들은 체지물게계집 계목숨하노를 위호슈가업시 양반의게미엿스니노라 위호힘이 잇습는가 입한번을 잘못버려도 죽일놈이니 살릴놈이니 오곰웁슨어라 귀양을보너라 하노양반님서술에 상놈이무슨사름갑세 갓습닛가 란리가노도 양반의 탓이올시다.⁸⁾

이처럼 과거에 양반들이 잘못하여 나라를 망쳤다는 논리로 시종되는 과거 비판, 양반 비판은 이인직의 또다른 대표작인 「銀世界」(1909)에서도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 작가가 지닌 정치관의 한 중추를 이루고 있다.

「혈의 누」에 나타난 정치의식으로서 또하나 문제됨직한 것은 “구씨의 목적은 공부를심썩하야 귀국후에 우리나라를 독일국갓치연방도올삼으되 일본과근썩를 혼더합하야 문명한중국을 맨들고그호는(비스믹)갓한마음시오”⁹⁾라는 귀절에서 엿보이는 구완서의 사상이다. 이 귀절은 이인직 자신이 훗날 한일합병의 실무자 역을 담당할 사실과 관련하여 그의 친일사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평가받기도 했거니와 이 대목을 곁에 나타난 문면 자체만으로 따지면 樽井藤吉이 제창하고 李容九가 찬동한 이른바 대동합방론을 연상시키는 점도 없지 않다. 아마도 이 문제는 이인직이 나이 40세가 되어서야 겨우 일본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동경정

켜서 이 대목을 옴미해볼 때에는 아무래도 전자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기울지 않을 수 없다.

8) 李人權, 「血의 淚」(광학서포, 1907), p. 27.

9) *Ibid.*, pp. 85-86.

치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을 정도로 미미한 신분의 소유자였고 탐관오리에 대한 증오를 소설에서 진하게 드러낸 점으로 보아 과거의 정권으로부터 학대받은 기억을 갖고 있거나 않은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할 정도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얼마만큼 해명이 가능할 듯하다.¹⁰⁾ 말하자면 그는 조선이라는 국가의 기존 정치체제에 대하여 어떤 적개심을 품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체제 아래서는 신분상승에 있어서도 모종의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던 바, 문명개화의 명분을 업고 맹렬하게 침투해 오는 일본의 존재는 이런 상황 속에 놓인 그에게 무언가 긍정적인 가능성을 약속해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리라 보여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을 충족시킬 수만 있다면 그 구체적인 실현방식은 연방의 형태를 취한 합방이든 아니면 일방적인 병합이든 상관할 바가 없었으리라. 1906년의 시점에서 합방론 비슷한 견해를 개진하던 이인직이 4년 후에 병합의 추진자로 탈바꿈하게 된 것은 이런 논리로 설명될 수 있다.¹¹⁾

이인직의 「혈의 누」가 이만한 정치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광수의 「무정」에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거의 완전하게 부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조선의 문예는) 區區한 政治問題같은 것에 잠혀서는 못쓴다”¹²⁾라고 한 일본 작가 島村抱月の 충고(?)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復活의 曙光」을 써 내려갔던 이광수는 「부활의 서광」보다 1년

10) 金允植, “정치소설의 결여형태로서의 신소설”, 『韓國學報』 제31집(1983, 여름), pp. 70-79 참조.

11) 조선왕조의 기존 통치체제에 대한 증오와 자신의 신분적 한계에 대한 불만은 민중과의 결합으로 나아가게 할 가능성도 지니고 있으나, 이인직은 이 길을 택하지 않는다. 그는 양반 귀족계급에 대하여 격렬한 혐오를 품고 있으면서도 민중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를 두지 않았다. 이인직은 「은세계」전반부에서 최병도로 하여금 민중의 항거를 폭거로 몰아서 규탄케 하고, 김정수 역시 민중의 움직임을 저지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혈의 누」에서는 “조선사람이 이렇케야만되고 이렇케용렬한쥬음” 운운함으로써 한국 민중에 대한 경멸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2) 『李光洙全集』, 10, p. 29.

먼저 나온 「무정」에서 이미 그러한 생각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다. 그래서 일찍 林焚澤 교수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宣化堂’이 ‘道廳’이 되고 ‘監司’가 ‘道長官’으로 바뀜으로 해서 도청에 식민지 통치자가 대신 버티고 앉은 망국의 쓰라림도 개화로써 합리화되”¹³⁾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2-4. 「혈의 누」와 「무정」은 점진적인 개량주의를 주장하면서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문제에 가장 깊은 관심을 쏟았다는 점에서도 공통성을 갖는다. 또한 이 두 작품은 사랑을 이야기하되 진정으로 근대적인, 내면으로부터 솟아나는 애정의 형상화로까지 전진하지 못하고 단지 애정이 중요하다는 관념을 추상적인 차원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그친다는 점에서도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다.

「혈의 누」의 경우 옥련이 구완서와 혼인을 약속하는 대목은 “옥련이가 구씨의 권하는 말을 듣고 한 조선부인교육할 마음이 간절하야 구씨와 혼인인 약을 먹지니”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 이른바 계몽의지를 앞세운 동지적 결합으로 그치고 있으며, 「무정」에서도 사정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형식은 선형과 약혼을 한 후에조차도 선형의 성격이 어떤지, 그녀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며, 또한 선형 자신의 사랑보다도 차라리 그녀와의 결합이 가져올 현실적 보상에 더 민감한 태도를 보여준다.¹⁴⁾ 여기에서 “둘의 결합은 애정보다는 미국유학을 같이 갈 수 있는 새 시대인으로서 동지적 결합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¹⁵⁾는 주장이 수긍될 수 있는 소지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도 「무정」은 「혈의 누」보다 11년이나 후에 나온 작품이니까 이 문제에 있어 뭔가 커다란 진보가 있으려니 하고 기대함직도 하지만, 예컨대 김선형과

13) 林焚澤, “新文學運動과 民族現實의 發見”, 「創作과 批評」 1973년 봄호, p. 29.

14) 李人禧, *op. cit.*, p. 85.

15) 鄭昌範, 「작중인물의 심층분석」(명민사, 1978), pp. 33-34 참조.

16) 宋敏鎭, “春園 初期作品의 文學史的 研究”, 「高大 60周年紀念論文集(人文科學篇)」(1965), p. 107.

옥련을 비교해볼 경우 형식에 대한 아무런 주체적 애정도 없이 단지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복종해야 옳다는 생각으로 약혼에까지 끌려가는 선형보다는 계몽이든 뭐든 간에 하여튼 스스로의 주체적 판단에 의해 혼약을 정하는 옥련 쪽이 훨씬 더 진보적이라고 여겨질 정도이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들어서 「혈의 누」나 「무정」에 나타난 사랑에의 관심을 전적으로 무시해 버린다면 그것은 부당한 노릇이리라. 적어도 이들 작품에 나타난 의식의 지향점은 분명히 평등하면서도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온 만남의 세계를 가리키고 있다. 예컨대 「혈의 누」에서 구완서가 옥련을 향해 “우선 말부터 영어로 슈작하즈”라고 제의하는 대목은 이인적의 물주체적인 사상이 지닌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여 흔히 비난의 대상이 되어온 터이지만¹⁷⁾ 작품 자체의 맥락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은 “조선말로 하면 입에익은말로 외척이라 하기불안하다”¹⁸⁾ 라는 이유에서 나온 태도로서 남녀간의 진정한 평등을 지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무정」에서 이형식이 김선형을 향하여 “선형씨는 나를 사랑합니까?”¹⁹⁾ 혹은 “아내가 되었으니까 지아비를 사랑합니까, 또는 사랑하니까 아내가 됩니까?”²⁰⁾ 하고 집요하게 애정의 확인을 요구하는 것도, 비록 실제적인 효과에 있어서는 선형으로 하여금 형식이 자기를 기생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의혹만을 갖도록 만드는 데서 그치고 말지만, 적어도 그 취지에 있어서는 내면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난 사랑에 의거한 결합만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만 그러한 지향이 추상의 차원을 넘어서 생활 속에 살아 있는 원칙으로까지 수용되기에는 아직 시기가 너무 일렀던 셈이다. 이러한 사정은 작품 속에 나타난 애정관계가 모두 불확실한 미래밖에 가지지 못하고 있는 점—즉 옥련과 구완서의 미래도, 이형식과 김선형의

17) 예컨대 趙東一, 「韓國文學思想史試論」(知識產業社, 1978), pp. 332-333 등.

18) 李人龍, *op. cit.*, pp. 84-85.

19) 「李光洙全集」, 1, p. 167.

20) *Ibid.*, p. 168.

미래도 전부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야기가 끝나 버리는 점²¹⁾—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2-5.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로 많은 점에서 공통된 성격을 지니고 있는 「혈의 누」와 「무정」은 또한 상승과 전진의 드라마를 보여 주되 그 상승과 전진이 완전히 달성되기 이전의 준비 단계, 이를테면 ‘공부’의 단계에서 작품을 끝맺고 있다는 점에서도 상통하는 면을 가진다. 즉 이 두 작품은 모두 정신적인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옮겨가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에서 그칠 뿐, 정말로 성년이 된 인물들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 것이다. 「혈의 누」가 끝나는 지점에서 주인공 옥련은 겨우 16세, 구완서는 22세가 되어 있을 뿐이며 「무정」의 경우에도 작품의 끝부분에서 이형식이 연게 되는 깨달음이란 것은 “자기는 아직도 어린아이다. 마침 어른 없는 사회에 처하였으므로 스스로 어른인 체하던 것”²²⁾이라는 사실의 자각에서 멈추고 있다. 이러한 결말은 참다운 개화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설정하면서 자신의 시대를 일종의 과도기 혹은 준비기로 보았던 이들 점진적 개량주의자들의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3. 「혈의 누」와 「무정」이 모두 자신의 시대를 일종의 과도기 혹은 준비기로 파악하는 관점에 근거하여 씌어졌다고 할 경우, 그러한 과도기·준비기를 지나 그 다음의 단계로 나아갔을 때 펼쳐진 세계는 무엇이었을까? 이들 작품에 내재되었던 긍정적인 미래의 비전이 현실로 옮겨지게 된 경지였을까? 불행히도 사정은 그렇지 못하였다. 그렇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혈의 누」의 속편인 「모란봉」과 춘원이 「무정」 다음에 곧이어 집필한 「개척자」에서 각각 극명하게 드러난다.

「모란봉」의 경우를 보면 「혈의 누」 끝부분에서 여자 교육의 선구자들

21) 「무정」의 경우 그 에필로그를 보면 이형식과 김선형의 결합이 하등의 갈등 없이 원만하게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지만 이것은 작품 자체의 내적인 논리에서 자연스럽게 발전되어 나온 결말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22) 「李光洙全集」, 1, p. 192.

자부하며 포부에 가득차 있던 옥련이가 정작 귀국한 뒤에는 폐쇄된 세계로 되돌아갈 뿐 아니라 가장 고루한 치정과 음모극에 말려들어간 상태에서 헛되이 세월만 보내는 신세가 된다. 또 옥련과 마찬가지로 오랜 미국 유학의 경험을 가진 그 아버지 김관일도 아무런 실천적 행동을 보여주지 못한 채 무위도식이나 일삼는 인간으로 타락해 있다. 또한 「개척자」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태는 조금도 호전되어 있지 않다. 일본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과학을 연구하는 당대의 진보적 엘리트 김성재는 의욕에 찬 실험에서 실패만을 거듭한 끝에 사악한 대금업자에게 집까지 빼앗기는 실의의 인간으로 그려져 있으며, 그 누이인 성순은 민은식과 자유연애에 의해 인격적 결합을 성취할 것을 꿈꾸지만 역시 좌절을 겪고 자살로 삶을 마감한다. 이처럼 실패와 좌절의 기록으로 가득차 있는 「개척자」의 분위기는 그 제목이 풍기는 적극적인 뉘앙스에도 불구하고 「무정」의 낙관적 비전과는 상당한 거리를 갖는 것이며 차라리 「모란봉」의 세계를 연상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어두운 분위기로 채색되어 있는 「모란봉」과 「개척자」는 각각 그 前作인 「혈의 누」 및 「무정」과 비교할 때 훨씬 열등한 작품으로 평가되어 왔으며 이러한 평가는 타당하다. 「모란봉」에 나타난 인물설정과 사건전개방식의 고루함, 「개척자」에서 보이는 설교취미의 과잉노출과 인물·사건의 어색스러움 등은 기존의 부정적 평가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작품이 문학적으로 세련되게 형상화되지 못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조금 다른 측면에서 조명을 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 두 작품은 작가 자신이 그것을 의식했던 안했던 간에, 당대의 사회가 당면하고 있었던 문제의 심각성을 그 나름대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혈의 누」와 「무정」의 주인공들이 모두 고아 내지는 사실상의 고아 상태에 떨어진 인물로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야기를 전개할

때에는 미처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이 남게 된다고 말한 바 있었거니와 「모란봉」이나 「개척자」에 나타난 답답하고 우울하며 폐쇄적인 세계는 바로 이러한 결락부분을 보완해 주는 기능을 맡고 있다.

예컨대 「모란봉」의 경우, 고아 상태에 있던 「혈의 누」에서는 거침없이 개진될 수 있었던 옥련의 개화의지가 가족이 모두 살아 존재하는 정상적 상태로 복귀함과 더불어 강한 시련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은 결코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옥련이가 부모를 만나 고아 상태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다시 회복된 가족제도의 끈은 그녀를 얽어매어 구식 그대로의 봉건적 결혼으로 끌어가려는 힘, 즉 일종의 반근대적 세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셈인데 이처럼 전래적 가족제도의 온존이 근대화에로의 의지를 방해한다고 본 점은 이인직의 중요한 통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모란봉」의 이와 같은 사건전개에서 옥련이 전혀 능동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대적 개화의지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구완서가 아예 등장하지도 않고 아득히 멀어진 존재로 되어 있는 점은 이인직의 시대에 있어서 아직도 개화의지라는 것이 추상적인 차원에 머물렀고 전통적 가족주의의 질곡을 온전히 깨뜨리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개척자」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성재의 파산과 성순의 자살은 모두 낡은 인습적 체제가 그냥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길을 열려는 자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던가를 인상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일본 유학생 출신의 진보적 과학자인 성재가 누이의 혼인 문제에 있어서 철저히 낡은 인습에 사로잡힌 봉건적 관념의 화신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당대에 있어 구습을 극복했노라고 자임하는 사람들조차도 대개의 경우에는 단지 이론의 차원에서만 그러했을 뿐 체질에 있어서는 여전히 낡은 인습을 온존시키고 있었으리라고 사실을 짐작케 하는 것으로 흥미로운 바 있다.

이처럼 「모란봉」과 「개척자」는 그 소재의 선택과 당대를 보는 안목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위에서 말했듯 실패작의 낙인을 면치 못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들 작품의 작가가 지닌 소질 혹은 적성의 문제와 관련시켜서 생각할 때 어느 정도 해명이 가능할 듯하다. 즉 이인직이나 이광수가 지닌 작가적 소질은 당대의 답답한 사회상을 리얼하게 그려내는 것보다도 이상의 세계로 상상의 날개를 뻗는 쪽에 더 능숙한 것이었으며 그래서 「혈의 누」와 「무정」은 각각 그들의 장치를 발휘한 성공작이 될 수 있었고 반대로 「모란봉」과 「개척자」는 적성에 맞지 않는 세계를 다룬 것으로서 실패작의 낙인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이다.